



보 도 자 료

대 통 령
홍 보 비 서 실
춘추관 TEL 02-770-2564

담당부서: 정책기획위원회

행 정 관: 김성환

☎: 770 - 2226

주무부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팀장: 진 혁

☎: 3703 - 2688

2020년을 향한 「신국토 구상」 발표

■ 29일, 대전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포

- 협력과 상생을 통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 신국토구상 -2020년 겨냥한 미래 국토발전의 새로운 골격

■ 참여정부 국토철학과 2만불 시대 구현 위한 실천방향 제시

■ 신국토구상 5대 전략과 7대 과제도 함께 선정

- 산업단지는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중추기지로 탈바꿈 등

■ 혁신형 국가로 개혁할 경우, 2012년경 2만불 달성 전망

행사 개요

□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는 한편, 2020년을 향한 신국토구상 5대 전략과 7대 과제를 발표

□ 이날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 시·도지사를 포함한 16개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

- 지난 정기국회에서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통과되고, 4월 1일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본격적인 지방주도의 지방화시대가 개막됨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참석 인사들은 서울·부산·광주에서 고속철을 이용하여 대전 행사장으로 이동할 예정
- 행사는 대전정부종합청사내 후생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공동 주최)으로 10:30부터 영상물 상영을 통한 3대 특별법 경과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륜 위원장의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모범사례 발표, 대통령 말씀, 오찬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

신국토구상의 배경

- 지금 세계는 경제공동체, 지역, 기술혁신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도 EU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도 순환적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음
-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주도의 양적성장, 지역간 연계가 없는 단절적 성장, 수도권 일극집중형 성장, 국토의 난개발, 국내적 시각의 국토 경영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2만불 시대로의 질적 도약을 하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음
- 참여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 지방화를 위한 대구구상 발표('03.6)
 - 인천·부산·광양의 경제특구 지정 등 동북아경제중심의 추진

-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포함한 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 등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오늘 「신 국토 구상」을 발표하게 되었음.

- 「신국토 구상」은 2020년을 겨냥한 미래 국토발전의 새로운 골격과 지역 주도의 기술혁신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큰 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고 제2의 국가도약을 이루고자 함

신국토구상의 주요 내용

- 균형발전 시대를 향한 신국토의 비전은 개방화된 국토, 고속화된 국토, 상생·통합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혁신주도형 발전 (Innovation - Driven)전략을 통해 미래 한국을 역동적인 한국(Dynamic Korea)으로 건설하는 것임
- 이러한 국토개혁 방향을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신국토 구상 5대 전략과 7대 과제”를 선정하였음

○ 신국토구상 5대 전략은

- ① 지자체, 지방대학·연구소, 기업, NGO, 지역언론 등 5대 주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와 함께 기존의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는 혁신형 국토 구축
- ②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적극적인 지방분산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통한 다핵형 국토 건설
- ③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비롯한 지역간·국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초고속 교통·정보통신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네트워크

크형 국토 형성

- ④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적 국토이용과 선계획-후개발 체계 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형 국토 관리
- ⑤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초국경적 국토경영을 지향하는 글로벌형 국토 경영임

○ 이러한 전략 실현을 위한 신국토구상 7대 과제는

- ①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 ②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간 연계발전 추진
- ③ 농·산·어촌의 혁신
- ④ 지방분산 국가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⑤ 친환경적 국토관리
- ⑥ 개방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벨트 조성
- ⑦ 신국토구상 관련계획 정비 및 추진

□ 이날 보고를 통해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당장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소득 2만불을 조기에 달성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 혁신에 실패하여 미국과 기술격차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국민소득 2만불은 2024년경에 가서야 달성 가능하겠지만,

○ 혁신성공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2000년 수준인 GDP대비 2.3%로 높일 수 있다면 2012년경에 2만불, 2020년에는 3만3천불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일류 선진국가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할 예정

향후 추진계획

- 신국토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부처별로 7대 과제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신국토구상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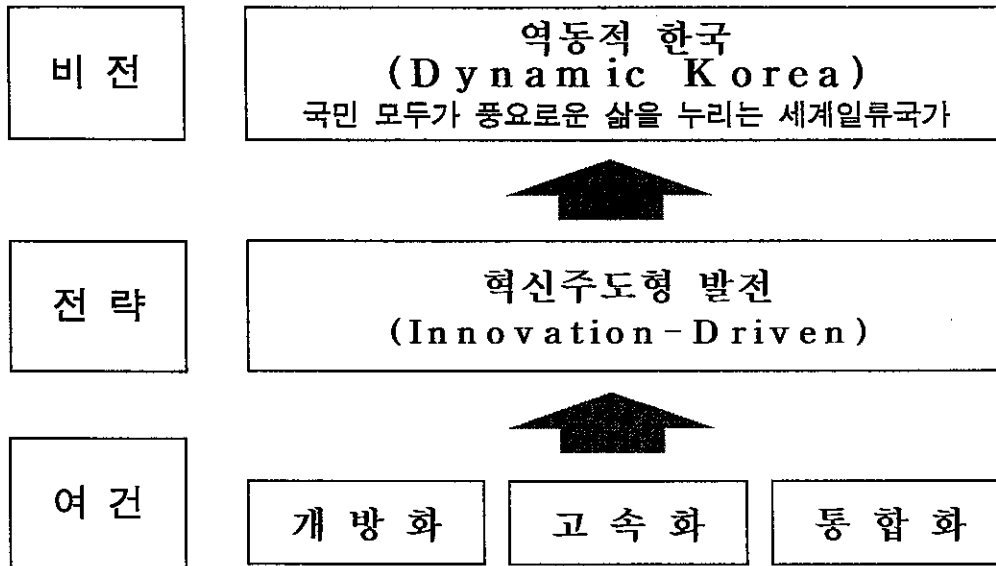
붙임 자료 1. 신국토구상 5대 전략 및 7대 과제(요약)

2.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보고서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요약)

1. 신국토비전

□ 「신국토 비전」



□ 「신국토 패러다임」

국가 주도 양적 성장	⇒	지역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
지역간 연계없는 획일적, 단절적인 성장	⇒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간 연계발전
수도권 일극집중형	⇒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무계획적인 개발위주 성장	⇒	환경용량을 고려한 전환경 국토관리
국내적 시각의 국토경영	⇒	국제적 시각의 국토경영

2. 신국토구상 5대 전략

- ① 혁신형 국토 구축 ② 다핵형 국토 건설 ③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 ④ 지속가능형 국토 관리 ⑤ 글로벌형 국토 경영

1] 혁신형 국토 구축

- 지자체, 대학, 기업, NGO, 언론 등 혁신주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농산어촌형 지역 혁신체계 구축

2] 다핵형 국토 건설

-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분산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
- 연안국토축과 접경지역의 광역적 개발 및 관광거점 개발
- 수도권외의 계획적 관리 추진

3]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

-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간·국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초고속 교통·정보통신망 등 SOC 확충

4] 지속가능형 국토 관리

-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이용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 “선계획-후개발” 기조를 통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

5] 글로벌형 국토 경영

-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초국경적 국토경영과 동북아 분업체계 구축 등 상생발전구도 정착
-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 국제공항·항만 확충, 개방거점 육성, 외자유치 확대

3. 신국토구상 7대 과제

과 제	내 용	주요 관련부처
1.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간 연계 발전 추진	○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04~) ○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간 연계발전방안 마련('04. 4 계획수립, '04.12 방안마련)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육성('04하 추진)	산자부 교육부 과기부 문광부 재정부
2.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계획수립('04.6) 및 시범사업 추진('05부터) ○ R&D특구 지정 및 육성('04.12) ○ 산업혁신을 위한 대학역량 확충 및 인력양성('04~)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건교부
3. 농·산·어촌의 혁신	○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04~) ○ 5都2村형 사업의 추진('04~)	농림부 행자부 건교부 해양부
4. 지방분산 국가 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신행정수도 건설('07 착공) ○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04~)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동서간 도로 등 교통·통신체계 정비('04~) ○ 고속철도 건설 역세권 개발 및 수혜지역 확대('04~)	건교부 정통부
5. 친환경적 국토관리	○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04~) ○ 생태축 보전계획 수립 및 국토환경성평가 체제강화('05~'06)	환경부 건교부
6. 개방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 벨트 조성	○ 인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등 조기확충('04~) ○ 경제자유구역 등 개방거점 확충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04~) ○ 연안국토축 및 접경지역 광역개발('05~'07) ○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휴양레저단지, 테마파크 개발('04~)	해양부 산자부 재정부 문광부 건교부
7. 신국토구상 관련계획 정비 및 추진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04.12) ○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04.12)	건교부

1.29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의 선포식 행사의 배경과 의미

□ 지방화와 균형발전 선포식을 총선용 행사로 폼하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 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출범이후 여러 위원회와 관련 태스크포스, 정부 각부처 등에서 수백여회의 회의를 거쳐 나온 정책내용을 총괄하는 내용으로 ‘신국토구상’을 마련해 본 행사를 개최하는 것임. 이를 총선용으로 폼하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할 수 있음.
- 행사에 참석하는 730여명의 행사 참여자는 총선 들러리로 오는 분들이 아니라 16개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천하는 분들로서 지자체, 산업체, 지방대학, 연구소, 언론, 지역 시민단체 등 지방발전을 추진할 주체들임. 행사 참여자들은 동원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오시는 분들임.
- 일부에서 수도권 역차별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왜곡이며 본 행사는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취지로 하는 것으로 역차별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음.

□ 이 행사가 ‘진짜 민생 프로그램’으로 국가혁신과 지역혁신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창출, 경제성장과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행사’임

- 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으로 모든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미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신국토구상”을 발표하여, 당적과 지역을 떠나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자는 다짐을 하기 위한 자리임

□ “신국토구상”은 우리나라를 혁신형, 개방형으로 탈바꿈하여 지난 고도성장시대 이후의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생산기능 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변혁하며, 지역별로 특성과 강점을 살린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전국적으로 연계 발전시키자는 등의 제안이 주된 내용이며

- 이러한 정책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에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행사에는 혁신에 성공한 지역의 사례로 발표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음